

[전체공지]

교황님 기도 지향

<일반 지향> 아프리카의 젊은이들이 자기 나라에서 교육을 받고 일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 제 12 회 돈보스코 골프대회 (탐파 성당)
일시- 10 월 7 일(주일) 오후 1 시
장소- Temple Terrace Golf & Country Club
신청마감- 각 본당 사목회장님께 9 월 25 일 까지

[잭슨빌]

- 미사후에 성지순례 가시는분들의 미팅이 있습니다.
- 셸폰 강좌가 친교후에 있겠습니다.
- 다음주일 미사는 오후 5 시에 텔라하시 천정기 신부님께서 집전하십니다.
- 성지순례를 인도 하시는 신부님과 참석하시는 신자분들의 안전여행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게인즈빌]

- 9 월 22 일 한인 미사는 성지순례 일정으로 없고 5 시 30 분 미국미사를 함께 합니다.
- 9 월 29 일부터 주일학교 개강합니다.
- 오늘 야외미사에 함께 하시고 준비하며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공동체	주일봉헌금	교 무 금	건축헌금	기 타	총 계
게인즈빌	\$169	-	-	-	\$169
잭슨빌	\$352	\$4,570	-	-	\$4,922



聖 최경환 프란치스코 한인 성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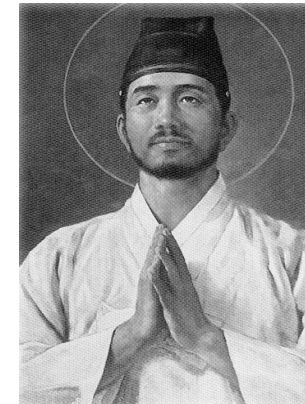
St. Francis Choe Korean Catholic Mission

주임신부 김영수 스테파노 (904) 525-4809

성당 (904) 573-1833

잭슨빌 성당 St. Francis Choe Catholic Mission, 8051 Rampart Rd. Jacksonville, FL 32244

게인즈빌공동체 St. Patrick Parish, 550 NE 16th Ave. Gainesville, FL 32601



聖 최경환(崔京煥) 프란치스코(1805-1839)

잭슨빌 한인 성당		게인즈빌 한인 가톨릭 공동체	
주일 미사	일요일 오전 10 시 30 분	특전 미사	토요일 오후 7 시
평일 미사	매주 수요일 오후 8 시, 첫째 금요일 성체현시 및 미사	평일 미사	둘째, 넷째 금요일 오후 7시30 분 성가대 연습실
성령 기도	매주 금요일 오후 8 시	성령 기도	매주 토요일 오전 9 시
성프란치 스코 기도회	매주 (목) 오전 11 시	레지오	-
성시간	첫째 주 금요일 미사 후	주일학교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주일 미사 후	예비자 교리	매주 토요일 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주일미사 후	사목회의	첫째 주 특전 미사 후
사목회장	어인수 안토니오 (904) 866-0708	사목회장	천창준 레오 (860) 906-6567

www.stfccm.org

https://www.facebook.com/St.FrancisChoe

오늘의 묵상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겪으실 수난과 죽음에 관하여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반박합니다.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수난과 죽음을 겪으셔야 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기에, 이를 거스르는 것은 사탄의 유혹이 아닙니까?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서는 하느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려고 "사탄아, 내게서 물러가라. 너는 하느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라고 꾸짖으신 것입니다.

하느님의 일은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다른 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눈에 보이는 결과보다는 먼 앞날을 내다보아야 합니다. 자신에게 불필요한 것을 잘라 내며 십자가를 받아들여야 하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십자가를 피하려고만 합니다. 희생 없이 축복만 받으려는 편만한 신앙생활을 바랍니다. 사람의 일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모든 것을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보며 눈앞의 이익에만 몰두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의 처지에서 생각해 보는 지혜도 필요하지요.

베드로는 현세에서 힘이 있어야 잘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죽음으로써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을 끝맺으십니다. "누구든지 내 뒤를 따라오려면 자신을 버리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

사람의 뜻이 아닌 하느님의 뜻을 실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악습과 욕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도 꾸준히 자신을 성찰해 나가며,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김준철 토마스 아퀴나스 신부)

< 8. 찬미하여라 >



Bless the Lord, my soul, and bless God's ho - ly name.
찬 미 하 여 라 오 나 의 영 혼 아 -



Bless the Lord, my soul, who leads me in - to life.
찬 미 하 여 라 거 룩 한 주 이 름

연중 제 24 주일

[제 1 독서] 이사야서 50,5-9 L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맡겼다.>

[화답송] 시편 116(114—115),1-2.3-4.5-6.8-9(◎ 9)

◎나는 주님 앞에서 걸어가리라. 살아 있는 이들의 땅에서 걸으리라.

[제 2 독서] 야고보서 2,14-18

<믿음에 실천이 없으면 그러한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복음환호송]

◎알렐루야.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어떠한 것도 자랑하지 않으리라.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게서는 세상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세상에서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알렐루야.

[복음] 마르코 8,27-35

<스승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람의 아들은 반드시 많은 고난을 겪어야 한다.>

<전례 봉사자>

공동체		해 설	제 1 독서	제 2 독서	봉 헌
이 번 주	게인즈빌 (9/15)	이호석 레오폴드	천창준 레오	천송희 스텔라	
	잭슨빌 (9/16)	이교순 카타리나	이재민 토마스	렉시 베로니카	조종래(미카엘) 조의단(아네스)
다 음 주	게인즈빌 (9/22)	-	-	-	
	잭슨빌 (9/23)	한상신 디나	최차숙 마리아	박은숙 율리안나	이상미(미리암) 서정원(헬레나)

<미사 성가>

공동체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게인즈빌	681	139	495	494
잭슨빌	19	216	152	289

